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 -

2026. 4.

교 육 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목 차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II. (분석) 조기 사교육 이유	3
III. 비전 및 목표	4
IV. 핵심 추진과제	5
1. 유아 사교육시장 정상화	5
2. 공교육·보육 강화	8
3. 사회적 인식 개선	11
4. 유아사교육비 조사	14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최근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영유아로 확대

- 고교학점제 등 고교체계 변화와 함께 '영어는 미리 끝내야 한다'는 사교육 시장의 불안 마케팅 및 부모의 불안심리 확산으로 유아 영어학원, 초등의대반 등 사교육 다변화 및 저연령화 현상 심화

※ 사교육 다변화 이유 : 아이 하나를 제대로 기르자고 생각하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학원들이 학부모 수요에 맞춰 저연령화·다양화·세분화 (전문가 FGI, '25.10.)

※ [KBS, 추적60분]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 ('25.2.)

- **고객의 유아대상 영어학원 증가¹⁾ 및 영유아 사교육 확대 경향²⁾**

1)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 : ('19) 615개 → ('25) 814개, 32%↑, 서울 229개
유아대상 반일제 영어학원 월평균 사교육비 : 154.5만원('24)

2) '24 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결과 : 총8,154억원, 1인당 월평균 33.2만원, 참여율 47.6%
▲(연령별 참여율) 2세미만 24.6% < 3세 50.3% < 4세 68.9%, < 5세 81.2%

□ 아동 발달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사교육 시장 형성

- 4세·7세 고시 등으로 불리는 과도한 수준의 모집시험을 통해 학원생을 선발하는 비정상적인 사교육 시장 형성

※ 초등 정기고사 폐지 이유: 단답형 지식 암기와 획일적 평가를 통한 비교·서열화 폐지

- ①시험을 통한 비교·서열화, ②한국어 사용 제한, ③장시간 주입식 수업, 및 신체활동 구속 등 영유아기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스트레스 우려

□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교육 시장 정상화 시급

- 영유아 사교육은 부모의 자율적 선택이 아닌 불안 심리와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회구조적 압력에 의해 확산되는 실정

- **국가인권위원회**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은 아동학대로 판단 ➡ **교육부** 비정상적 조기 사교육 해소와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권고 사항 요약 ('25.8.14) 】

- 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대상 학원 규제 방안 마련
- ② 극단적 선행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지침 마련
- ③ 놀이 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유아사교육 실태조사 등

2. 그간의 경과

□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23.6.~)

☞ 유아 사교육 대응 주요과제

- ▲(단기) 이음학기,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중장기) 유보통합 연계, 교육과정 개정
- ▲(제도개선)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 사교육 부작용 연구, 유아 영어학원 편법 운영 근절

- 유아대상 영어학원 지도점검('23년부터 매년 실시)
- 「'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실시('24.7.~12.) ⇒ 결과 공표 ('25.3.)

【 '24년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7~9월, 3개월간) 결과 요약 】

- (총액) 총8,154억원, 1인당 월평균 33.2만원(참여유아기준)
- (참여율) 전체의 47.6% (2세미만 24.6% < 3세 50.3% < 4세 68.9%, < 5세 81.2%)
- (사교육 경향) 재능개발, 진로탐색, 돌봄 등의 목적으로 여체능, 독서, 논술, 영어 등

구분	전체	기관재원			가정	연령별			
		소계	어린이집	유치원		2세이하	3세	4세	5세
사교육비 총액(억원)	8,154	4,671	1,869	2,802	3,483	858	1,325	2,452	3,519
유아수(만명)	172.2	136.2	86.3	49.8	36.0	80.1	27.9	30.9	33.2
참여율(%)	47.6	50.3	37.9	71.8	37.7	24.6	50.3	68.9	81.2

* '24년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는 연간화 되지 않는 미승인 통계로 자료 이용 해석에 유의해야 함

□ 국정과제 [101-③] '영유아 사교육 대응' 세부과제 설정·추진 (25.9.~)

- 영유아사교육대책팀, 다양한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FGI 실시(~'25.12.)

☞ FGI 결과, 부모들은 다양한 육아정보 등을 통해 "영유아기 아이들의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대학입시를 목표로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사교육을 선택

- 부모교육 및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언론기고 등 다양한 홍보 (계속)

☞ (언론기고) 장관님, "아이의 시간을 지켜줄 사회가 필요하다."(전자신문, '26.1.15)

☞ (K_MOOC) "영유아기 사교육 무엇이 문제인가?_우리 아이에게 중요한 성장이야기 놀이" 탑재('26.1.)

☞ (EBS) "영유아사교육보고서_당신은 어떤 부모입니까?"('25.12.), 영유아클래스α('25.5~10, 총24편 방영)

-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교육특별위원회 안건 상정 및 논의('26.2.)

☞ 놀이의 가치를 알리고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내실화 과정 필요

- 유아 대상 모집시험 등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26.3. → '26.9. 시행예정)

☞ 제12조의2(유아대상 모집시험 등의 금지) 학원 및 과외교습자는 유아대상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 및 평가 금지, 단, 등록 후 + 보호자 사전동의 + 교육 활동지원 목적의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 가능

II. [분석] 영유아기 부모가 조기 사교육을 선택하는 이유

<p>불안 (사회적 압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교육은 내 자녀가 타인보다 '뒤쳐지지 않기' 위한 방어적 기제 ✓ 아이를 위한 교육적 선택으로 '좋은 부모임을 증명'하는 행위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들 다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뒤쳐질까봐", "대부분 아이들이 학원 다니고 있으니까요", "제 아이를 위한 선물이에요" (부모 FGI, '25.10.) • 영유아 사교육 과열현상에 대한 부모 인식 조사에서 '자녀가 뒤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4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순천향대 교육대학원, '21.2.)
<p>불신 (공교육 불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세대의 학업 실패 경험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보상 심리 ✓ 공교육 영어만으로 수능·대학·직장·생활영어까지 대비할 수 없었다는 자신의 경험 및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사교육을 선택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느낀 영어에 대한 어려움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부모 FGI, '25.10.)
<p>투자 (인적 자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이 가능한 아이'를 만들기 위한 조기 투자 ✓ 자녀의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훈련해야 한다는 믿음 확산 ➡ 영어를 '도구'로 빨리 숙달할수록, 입시에 필요한 수학, 과학, 예체능을 배우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할 수 있다는 '기회비용' 측면 고려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릴 때부터 영어에 노출된 아이는 발음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학교 들어가서 영어 공부할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면 되니까요" (부모 FGI, '25.10.) • 취학 전 자녀 사교육 경험 있는 전국 초1 학부모의 41.3%가 선행학습을 해두면 더 유리하다 생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3.5.) • '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결과, 재능개발&진로탐색 60.3%(교육부, '25.3.)
<p>돌봄 (보육 공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하원 이후 학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와 더 늦은 시간까지 보낼 수 있음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사교육을 활용(육아정책연구소 '25.12.) • 24년 유아사교육비시험조사결과, 예체능 및 기타 사교육 수강 목적 중 '돌봄' 18.2% (교육부, '25.3.)



불안

사교육시장 정상화



불신&투자

공교육·보육 강화



돌봄 공백

돌봄 기반 확대

대국민 캠페인 및 사회적 인식 개선

III. 비전 및 정책 방향

비전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

정책
방향

사교육 시장 정상화

-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 보호
- 유아대상 학원의 모집시험 금지 등
- 과대·허위광고 금지

공교육 · 보육강화

- 독서교육, 이음교육 등 유아의 기초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강화
- 특색있는 방과후 과정 운영
- 수요 맞춤형 돌봄 운영 기반 확대

사회적 인식개선

- 놀이가 배움이 되는 영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콘텐츠 제작 확산
- 과도한 영유아기 사교육의 부작용 및 학습효과 한계에 대한 정보

유아 사교육비 조사

- 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실시
- 국가승인통계 지정
- 데이터 기반 사교육 대응방안 마련



다양한 의견 수렴 · 소통 확대

- 대국민 캠페인 및 지역 맞춤형 인식개선
- 교육부-시도교육청-관련 단체 간담회
- 학부모 대상 소통 창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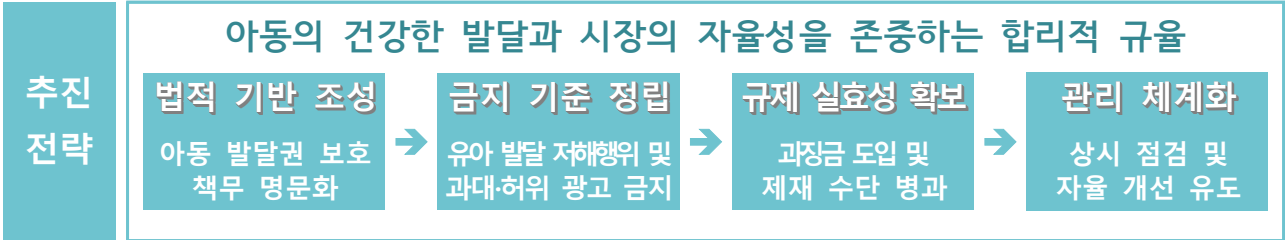
모든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 보장

추진
전략

-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5세 이음교육, 독서교육, 특색있는 방과후 활성화, 돌봄 기반 확대로 사교육 흡수
- (아이들을 지킵니다) 레벨테스트·과도한 학습 등으로부터 아동 보호
-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올바른 교육정보, 과대광고 규제로 불안 해소

IV. 핵심 정책 과제

1 영유아 발달권 보호를 위한 사교육 시장 정상화



1 아동의 건강한 발달권 보호 책무 명문화

- (교육기본법) '취학 전 아동의 발달과 정서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법률에 명시 ➡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학원법) 학원설립·운영자에게 평생교육 수행 주체로서 아동 권리보호 책무 부여 ➡ 사교육 시장 내 자율적 협력 유도

2 유아 발달 저해 행위 및 과대·허위 광고 금지

레벨테스트 금지	유해교습행위 금지	과대·허위광고 금지
모집 및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	비교·서열화, 3세미만 대상 인지교습 및 3세이상~취학전 대상 장시간 교습	광고·상담 시 객관적 근거 없는 학습효과·진학실적 강조
※ '26.3. 학원법 개정	※ 학원법 개정 예정	※ 학원법 개정 예정
(효과) 유아의 과도한 학습부담 및 스트레스 원천 차단	(효과) 정서적 학대 및 발달 저해 요소 제거	(효과) 학부모 불안심리 조장 및 사교육 과열 방지

- (레벨테스트 금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모집 시험·평가,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 금지
 - 지필평가뿐만 아니라 구술평가 방식이라도 지식·기술 습득 정도를 측정하여 정·오답을 판정하는 행위는 사실상 시험·평가로 판단
 - 타기관 학습이력·공인 영어점수 요구 등 편법적 선발행위 차단
- ※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진단행위'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예정

○ **(교습행위 제한 기준 마련)** 뇌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장시간 인지교습, 비교·서열화 행위 등 금지 기준 정립

- **(만3세미만, 인지교습 금지)** 만3세 미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원, 교습소, 과외교습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지교습 제한**(학원법 개정 추진, '26.下)

✓(제한하는 인지교습 행위) 강사가 주도하여 체계적·지속적으로 **교과목 위주** (문자, 언어, 수리 등)의 **지식 주입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 행위**

※ 단, 아동의 신체 발달, 정서적 안정, 감각적 체험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놀이, 돌봄, 예체능 행위 등은 제외

- **(만3세~취학전, 교습시간 제한)** 누리과정(1일 4~5시간) 및 초등 1학년(4~5교시) 학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1일 3시간, 1주 총 15시간 이내로 인지교습 시간 준수 의무 부여**(학원법 개정 추진, '26.下)

▶ **(만3세 구분 기준)** 만3세 미만 영유아는 안정적 애착, 감각 발달 등 '돌봄'에 기반한 **표준보육과정**을 적용하고, 만3세~5세 취학전 아동은 **누리과정** 운영

- **(심신발달 저해 행위 제한)** 유아의 학습 결과를 점수·등급·순위 등으로 표시하여 성적표를 발송하거나 게시하는 등 **비교·서열화 행위 금지**

※ **한국어 사용에 대한 별점·불이익** 부과 등 유아의 발달을 저해하는 규제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 **(과대·허위광고 금지)** 학습자 모집 시뿐만 아니라, 수강·교습 관련 상담 및 설명 단계의 **과대·허위 정보 제공 행위까지 제재 범위 확대**

※ 현행 학원법상 제재 범위는 학습자 '모집' 단계로 국한(법 제17조)

③ 제재·벌칙 규정 마련 및 규제 실효성 확보

○ **(과징금 신설 및 과태료 증액)** 위반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큰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여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규제 이행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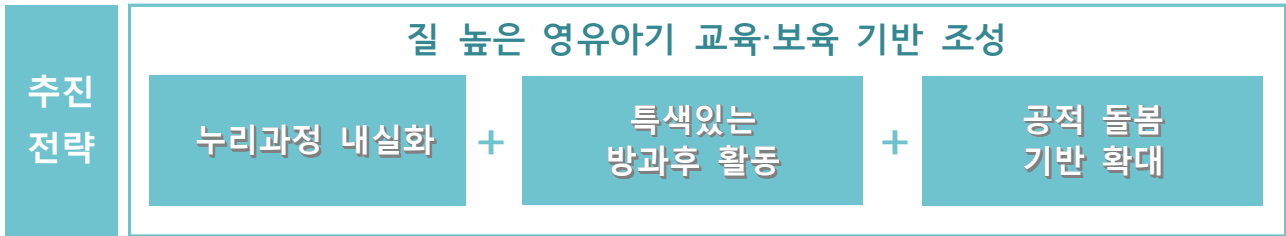
- ①과징금의 경우 매출액의 50% 이내로 도입하고, ②과태료는 1,000만원까지 상향(현행 최대 300만원)하여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제재 수단 병과)** 행정처분·형사벌·과징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의 제재 기반 구축
 - 금지 규정 신설에 맞춰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실질적 제재 기반을 확립하고, 제재 수단을 중복 적용하여 규제의 실효성 극대화

핵심 금지행위	등록·운영상 제재	경제적 제재 및 형사처벌
✓ 레벨테스트 - 모집, 수준별 배정 목적 시험·평가 ✓ 유해 교습행위 - 비교·서열화, 한국어 사용 시 벌점·불이익 등 - 인지교습(3세 미만, 장시간)	등록말소 또는 교습정지	경제적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신설}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하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형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과대·허위 광고 - 모집 광고 시 - 수강·교습 관련 상담 및 설명 시		해당 없음

4 학원 운영의 상시점검 및 자율개선 기반 확충

- **(운영 투명성 제고)** 학원 설립·운영 등록 시 '모집시험 실시 여부' 기재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학부모 알권리 보장
 - 유아 대상 학원의 경우, 교육부령상 등록신청서의 '교습과정' 기재란 서식을 확대·개편하여 레벨테스트 등 세부 운영 내역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개선
- **(국민 참여형 감시)** 불법행위 상시 감시·적발을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kr)' 기능 강화
 - * 운영주체(교육부 및 17개 교육청), 신고방법(온라인, 전화, 팩스 등), 신고포상금
 - 신고항목에 레벨테스트·유해교습 행위 등을 추가하고, 학부모 대상 홍보강화 및 신고포상금(10만원 → 200만원) 한도 상향 등
- **(강사 연수·교습길라잡이)** 유아교육 비전공 강사 대상 '온·오프라인 강사 연수' 개발 및 '교습길라잡이' 보급
 - ※ 아동 발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제공
 - 발달 단계별 지도 사례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강사가 스스로 교습 방법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정 기반 마련







① 유아의 기초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강화

- **(유아중심 누리과정 운영)**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 흐름에 따라 신체활동 및 바깥 놀이를 포함한 하루 일과를 운영하고, 놀이에서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교육과정 연계 강화)** ^{0~2세}표준보육과정-^{3~5세}누리과정-^{6세~}초등교육과정 기관 연계를 지원하고 교원 간 교육과정 이해 제고
 - **(이음교육)** 5세 유아의 원활한 초등학교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5세 이음교육 확대 운영('26.3.~)
 - ※ 이음교육의 일반적 지침을 안내하는 표준안 개발('25.12.) 및 보급('26.2.)
- **(문해력 기반 조성)** 누리과정에서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언어 경험을 통해 기초 문해력을 포함한 전인 발달 지원
 - **(언어·문화 경험)** 언어를 문화 요소로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범기관* 지정·운영
 - * (유치원·어린이집 시범 운영) 누리과정 속에 언어를 문화 요소로 포함하여 다양한 언어 경험 기회 확대
 - **(독서교육)** 성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책 읽기, 다양한 책 놀이 제공을 위해 독서중점 시범기관 운영 및 도서관 연계 사업 등* 추진
 - * 도서관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북트럭 운영, 현장지원자료 제작 등 추진
 - ※ 「2019개정 누리과정」 의사소통 영역 목표 중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상상하기를 즐긴다.'

② 유아·기관·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색있는 방과후 운영

- **(방과후프로그램 개발)** 학부모 요구가 많은 예술, 체육, 언어 등 분야를 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보급(어린이집 포함) 하고 유치원 특성화 운영 기준완화
 - ※ (~25) 1일1개1시간 이내 운영 → (26~) 정부개발공공지원 프로그램은 특성화 운영 기준 제외
- **(기관특색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수요 중심 또는 돌봄 위주 운영에서 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기관별 특색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 ※ (국정과제 101-3-6) 방과후 특색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26)1,000개원 → (27)1,500개원 이상
- **(방과후 인력 전문성 제고)** 개발 프로그램 현장 활용도 및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연수 실시 및 현장 지원 병행
 - ※ (26) 누리과정 포털 >> 교사i-누리 >> 방과후 프로그램 온라인 연수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방과후 담당 인력 대상 역량강화(규모 9,000명)

【 방과후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25년) 】

기관	주요 운영 내용	사진
○○어린이집	월 1회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정비소, 노인복지관 등)과 공간을 탐방하며 직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 및 공동체 의식 함양	
□□유치원	교육부 개발 연령별 '다함께 운동놀이'(3세), '쓱쓱 과학놀이'(4세), '랄랄라 음악놀이'(5세) 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 연계 수업 강화	
△△어린이집	교육부 개발 4세 유아 대상 '팡팡팡 영어놀이' 프로그램 적용하며 교원 연수, 학부모 연계, 지역 사회 자원 활용 실시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연계한 놀이 운영, 지역 사회·숲·바다·환경·문화 주제로 환경 보호, 전통 문화의 중요성 및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프로그램 운영	

③ 수요 맞춤형 공적 돌봄 기반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대 및 품질 제고를 통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국가책임 강화
 - ⇒ '24년 368개소 확충(공공보육 이용률 43%) -> '25년 258개소 확충(공공보육이용률 46%)
 - ⇒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에 따라 '27년까지 공공보육이용률 **50% 이상** 달성 목표
 - ※ 공공보육이용률 :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 **(다양한 돌봄 기반 강화)** 돌봄 공백으로 인하여 사교육을 이용하는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유도할 수 있도록 **틈새돌봄 운영 확대**
 - ※ (국정과제 101-3-3)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확대 : ('26) 200개원 → ('27~) 300개원 이상
 - **(거점형, 연계형 돌봄)** 단위 기관에서 돌봄 운영이 어려운 경우, 거점 기관 혹은 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틈새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
 - ※ 아침·저녁·방학 등 틈새돌봄 프로그램 운영, 급간식 제공, 출퇴근 시간 원거리 등·하원 아동 대상 통학버스(원소속기관 인계 등) 운영 등 지원

구분	거점형 돌봄	연계형 돌봄
개요	거점기관(유치원·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지역 내 돌봄 수요를 흡수하여 돌봄 운영	지역 내 거점기관이 없거나, 단독 돌봄이 어려운 기관에서 인근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 운영
이용방법	거점기관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기관 간 협의하여 연계 돌봄 운영
이용대상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유아 중 돌봄 필요 유아	연계된 기관 내 돌봄 필요 유아

거점형
연계형
돌봄
분포
(예시)



- **(시간제 보육)** 가정양육 부모의 단시간·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지속 확대 추진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 ('25) 2,177개반 → ('26) 2,740개반

추진 전략

과학적 정보로 신뢰를 세우고, 협력으로 확산하며, 공감으로 인식 전환

타깃형 메시지
테마별·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기획

+

다채널 접근
온오프라인, 협력네트워크 연계

+

지속형 시스템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홍보시스템

1 타깃형 메시지 기반 콘텐츠 기획·제작

① 영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과 양육의 방향, 놀이와 배움의 가치

- (맞춤형 정보자료) 부모의 불안과 궁금증을 유형별로 반영하고 영유아기 교육·보육 정보를 시각 콘텐츠로 알기 쉽게 제작·배포
 - ※ 보호자 불안 유형 조사 결과 및 영유아 사교육 실태 분석 자료를 토대로 연령·지역별 맞춤형 교육보육 정보, 놀이의 교육적 가치 등을 담은 콘텐츠 개발
- (보호자 가이드북) '학부모는 처음이라' 가이드북* 개발·보급 및 가이드북 기반 온라인 강의(www.parents.go.kr) 제작·제공('26.3~)
 - * 부모를 위한 길잡이: 학부모 5대 역량(자기돌봄, 부모역할, 자녀교육, 학교협력, 자녀자립지원) 중심, 영유아기~성인 초기까지 부모가 알아야 할 기초 정보
- (보호자 교육자료) 교육·보육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영유아 성장·발달 단계별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 ※ 유아(3~5세) 보호자 교육자료(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연령별 디지털 콘텐츠 57편 제작('25) + 영아(0~2세) 부모 교육자료 추가 개발('26)

② 영유아기 과도한 사교육의 효과와 한계

- (SNS 확산형 콘텐츠) 영유아기 사교육 및 조기 선행학습 관련 핵심 메시지를 확산이 용이한 숏폼 영상으로 재편집하여 SNS에 순차 확산
 - ※ 기존 공신력 있는 강연·다큐멘터리 등 선별 후 30초 숏폼 영상으로 제작·확산
- (전문가 활용형 콘텐츠) 영유아 교육·뇌 발달 관련 학회 및 포럼 등 전문가 집단의 연구 기반 콘텐츠 제작·확산
 - ※ 인지과학회, 아동정신건강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유아교육학회 등 학계와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 사교육의 영향과 한계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정보 제공

② 다채널 접근을 통한 콘텐츠 확산

① 대중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포털사이트·플랫폼 활용

- (포털사이트) 「유보통합 포털」, 「네이버」 등 주요 포털 배너 및 검색 연계 페이지를 활용하여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 추진
 - ※ △시즌형 캠페인 예) 권역별 릴레이 학부모 토크 콘서트, 토론회, 포럼 등 개최
 - △상시형 캠페인 예) 지역 맞춤 사업 연계, 기념일 등 테마별 참여 월별 챌린지 등
- (플랫폼) 「함께학교」, 「아이누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교육 인식 개선 공모전, 공교육·보육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사업 운영
 - ※ 아이누리(i-nuri) 포털 상시 운영: 「(가칭)놀이하우스」(놀면서 이해하고 하나되는 우리들의 스토리) 상시 운영

② 일상 속 정보 접점을 이용한 공익광고·언론 등 활용

- (공익광고) KTX역사, 지하철, 버스 및 옥외광고판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기 과도한 조기 사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광고를 제작·송출
- (공영방송) 과도한 조기 사교육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녀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미디어 송출 가이드라인 마련
 - ※ (복지부) 아동·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미디어 제작·송출 가이드라인 등록배포('24.1)
- (언론기고) 국내 주요언론사와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국내·외 석학들이 제시하는 영유아기 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담론을 지속적으로 기고
 - ※ 인터뷰·칼럼 연재, 입학·학기 전환 등 사교육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춘 기획기고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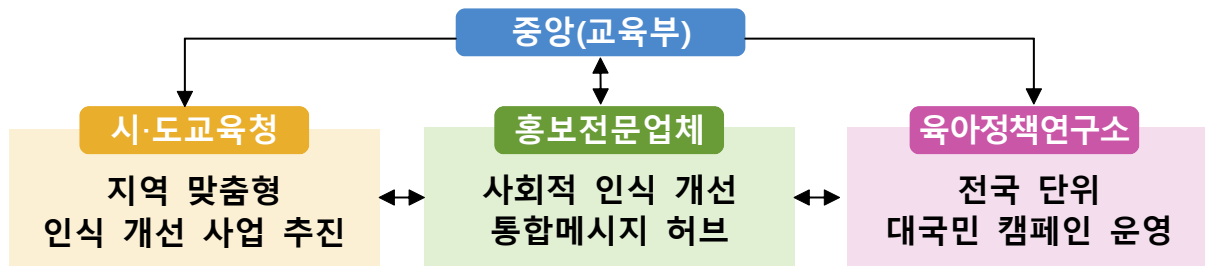
③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과 참여 접근성이 용이한 SNS 활용

- (교사+원생) 「놀이 중심 교육과 배움(학습)의 연계 과정」을 부모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실제 유아교육 현장 영상 등 제작·확산
 - ※ 예) 교사 지원단과 협력하여 숏폼, 릴스, 놀이 배움 신문 등으로 제작하여 확산
- (부모+자녀)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와 함께 놀이를 실천하는 「우리 가족 10분 놀이 챌린지」 영상 등으로 참여 확산
 - ※ 예) 「(가칭)아이만큼 배움」 챌린지: 아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기다려주는 놀이와 일상생활 속 배움과 학습 발견 내용

③ 중앙-지역-현장을 잇는 확장형 인식 개선 거버넌스 구축

① 중앙-지역-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 **(협력 네트워크)** 영유아 사교육 인식 개선 홍보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사회적 확산구조로 정착되도록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추진
 - 지역 맞춤형 사업과 대국민 캠페인을 연계하여 통합·관리하고, 소통·참여형 콘텐츠, 다채널 홍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



- **(지역 맞춤 사업)**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별 여건, 학부모 수요 및 사교육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예) 지역 내 공공기관, 도서관, 체험학습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학원 대신 활용 가능한 지역사회 영유아 교육·보육 자원 지도 제작 등
- **(현장 연계 협의체)** 교사 크리에이터·부모 인플루언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감형 일상 언어와 교육 현장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자발적 공유·확산

② 범정부-사회 연계형 인식 개선 협력체계 구축

- **(확장형 협력체계 구축)**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확산·정착될 수 있는 확장형 협력 구조 마련 및 협업 추진
 - **(범부처 협력)** 부처별 사업과 홍보콘텐츠 간 메시지 방향성 공유 및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여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창출
 - ※ (예) 각 부처(복지부, 성평등부 등)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던 교육·돌봄 서비스 및 출산 전·후 양육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정보로 제공
 - **(민관·학 협력)** 민간 전문가, 교육 단체, 시민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감대를 반영한 메시지와 콘텐츠를 공동 기획하여 인식 전환 유도
 - ※ (예) 지역사회 내 소규모 학부모 모임 지원 오프라인 캠페인 전개, 시민단체와 민간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 공동 제작 등

4

데이터 기반 영유아 사교육 경감 정책 추진

추진 전략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책 마련

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 실시

+

국가승인통계 지정

+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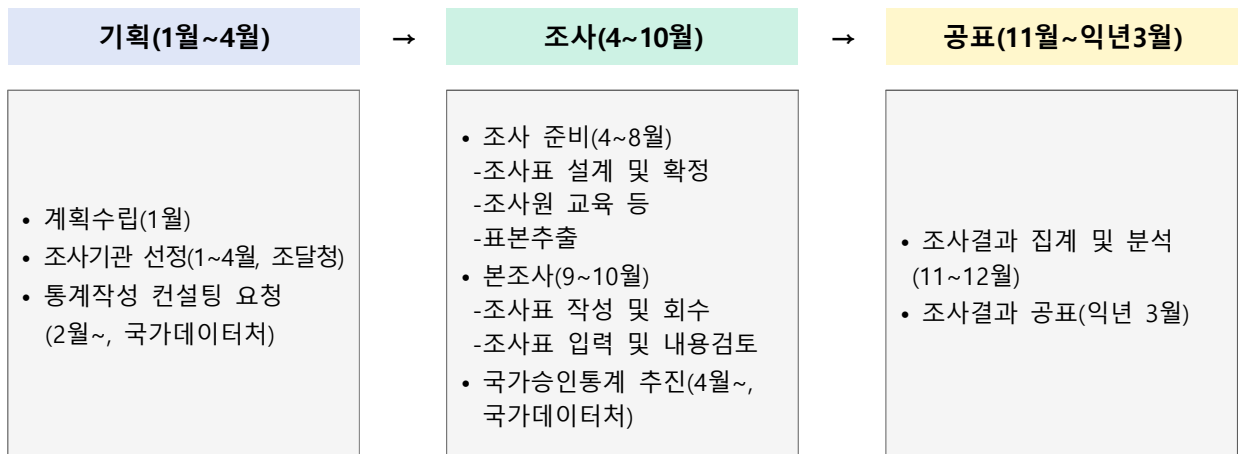
1 영유아 사교육비 본 조사 실시 및 국가승인통계 지정

- (영유아 사교육비 본조사) 부모 인식 조사 등을 포함한 「유아 사교육비 조사(’26년~)」를 통해 데이터 기반 맞춤형 대책 마련
- (국가승인통계 지정) 통계법에 따른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여 국가 데이터의 신뢰성, 안정성, 지속성 확보
 - 국가데이터처의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부처간 협업 추진

2 조사 데이터 분석 및 활용

- (중점연구소 지정)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및 영유아 사교육 관련 데이터의 종단 분석을 위해 중점연구소* 운영
 - * 초중등 분야 사교육 중점연구소 : 성균관대(’15~’22), 중앙대(’23~)
- (초중고사교육비와 연계분석) ‘유아사교육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와 연계한 심층 분석 추진

【참고】 ’26년 유아사교육비 조사



참고 1

2024년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주요 결과

【 2024년 유아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

- (총액) 3개월(7~9월) 사교육비 총액 8,154억원
- (참여율시간) 사교육 참여율 47.6%, 참여유아 기준 주당 참여시간 5.6시간
- (1인당)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3.2만원
 ※ 전체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15.8만원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일반과목 및 논술과목은 입학 준비(67.6%) 비중이 높음
- ※ 본조사는 시험조사이며, 연간화되지 않은 미승인 통계로 자료 이용해석에 유의 필요

□ 7~9월 사교육비 총액은 8,154억원, 사교육 참여율은 47.6%, 주당 참여시간은 5.6시간으로 기관 재원 유아 3.7시간, 가정양육 유아 15.2시간

【 사교육비 이용 총액 및 참여율 】

구분	전체	기관유형별				연령별				
		기관 재원	어린이집	유치원	가정 양육	2세 이하	3세	4세	5세	
사교육비 총액(억원)	8,154	4,671	1,869	2,802	3,483	858	1,325	2,452	3,519	
참여율(%)	47.6	50.3	37.9	71.8	37.7	24.6	50.3	68.9	81.2	
참여시간	전체	2.7	1.8	1.1	3.1	5.7	0.5	2.6	4.4	6.3
	참여	5.6	3.7	2.9	4.3	15.2	1.8	5.2	6.4	7.8

- 사교육 참여유아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3.2만원으로,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월평균 17.2만원, 일반과목(국·영·수 포함) 및 논술과목은 월평균 34만원
 - (과목별 1인당 사교육비) 예체능은 취마교양(12.7만원), 체육(12.7만원), 음악(12.2만원), 일반과목은 영어(41.4만원), 사회·과학(7.9만원), 논술 등(7.5만원) 순
 - (수강목적) 예체능 및 기타 과목은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60.3%), 감수성함양(50.1%), 사회성발달(23.8%), 일반과목은 입학준비(67.6%), 재능계발 및 진로탐색(53.8%), 불안심리(41.0%) 순
- 가정양육 유아 17%가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에 참여하고,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이용 총액(3개월)은 2,668억원, 참여유아 기준 월 평균 비용은 145.4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 중 영어학원 월평균 비용이 154.5만원

【 3시간 이상(반일제) 학원 유형별 참여유아 기준 월평균 사교육비 】

(단위:만원)

구분	전체	유형별				
		영어학원 유치부	예능학원	놀이학원	체육학원	기타
참여유아 기준	145.4	154.5	78.3	116.7	76.7	74.7

□ 개요

- 국가인권위는 ‘7세고시’ 등 극단적 조기사교육 형태는 아동 인권 침해이며 교육부에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선행 사교육 제한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권고 (‘25.8.14.)

□ 주요내용

- 진정인은 ‘아동학대 7세 고시 국민고발단’ 826인으로, 유아대상 입학시험과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의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침해한다며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요구함
- 인권위는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이 아동의 발달과 건강을 해치고 놀이·휴식·자기표현의 시간을 박탈할 우려가 크며,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교육기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현행 제도상 이를 실효적으로 파악·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함

【권고사항】

⇒ 교육부장관은, 7세고시 등 극단적인 형태를 띤 조기 사교육 해소와 이를 통한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누릴 수 있는 사회 조성

- ①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 ②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 및 시험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방안 마련
- ③ 극단적 선행 형태의 외국어 읽기·쓰기 교육이 성행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령·지침 마련
- ④ 영유아에게 외국어 교육 숙달을 목표로 하는 과도한 외국어 학습 예방 조치 마련
- ⑤ 놀이 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

⚠️ 과도한 조기 학습 사교육의 그늘

영유아기 발달에 부적합한 경험

-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과잉 인지 학습 강요
- 정서적 스트레스로 인한 창의성 저하
- 놀이와 상호작용 기회 박탈



부모 불안과 부담

- 사교육비 과다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
- 경쟁 심화에 따른 불안 및 비교
- 육아 스트레스 및 정보 불균형



공교육이 든든해집니다

- 초등학교 적응지원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 5세 이음교육 확대
- 문해력의 기초 형성을 위한 독서교육 강화
- 특색있는 방과후 운영 활성화



아이들을 지킵니다

- 지필·구술 평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레벨테스트 금지, 비교 서열화 행위 금지
- 36개월 미만 인지도습 금지, 36개월 이상 1일 3시간 1주 15시간 이내
- 국민 참여형 감시 체계 운영



부모님을 지원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규제를 상담·설명 단계까지 확대
- 영유아기 사교육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
- 보호자 교육자료 개발·보급

기대효과



영유아

건강한 신체·정서·사회성 발달 주도성 및 창의성 신장 행복한 성장 기회 확대



학부모

양육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공교육 신뢰 회복 및 불안 해소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국가·사회

사교육 과열 경쟁 완화 출발선 단계의 교육 격차 감소 미래인재 육성 및 교육 경쟁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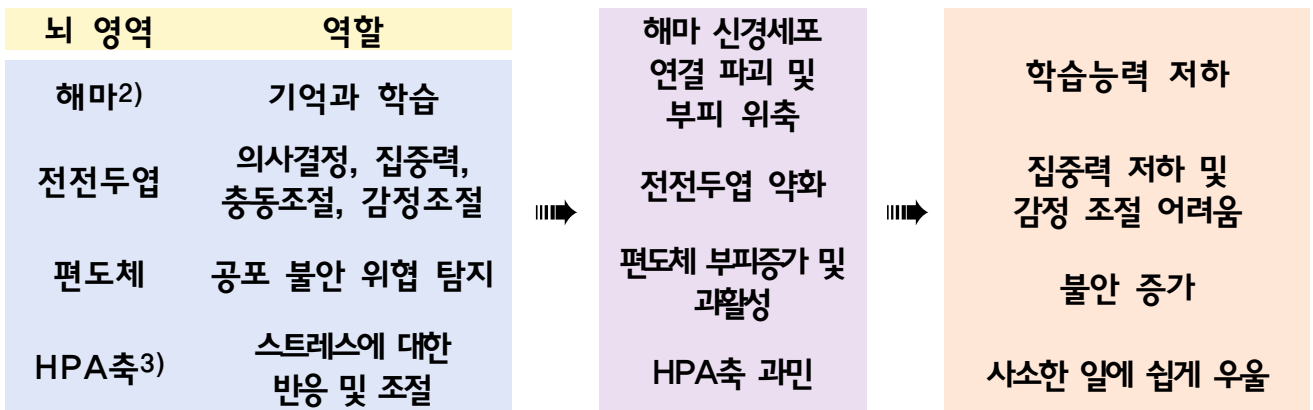
참고 4

영유아기 스트레스와 발달 관련 연구 내용

1 뇌 구조의 물리적 손상

- 영유아는 스트레스 민감성이 매우 높아 과제·평가·집단 활동이 장시간 지속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뇌 구조의 영구적 손상을 초래¹⁾

<< 스트레스 호르몬(코르티솔)이 뇌구조에 미치는 영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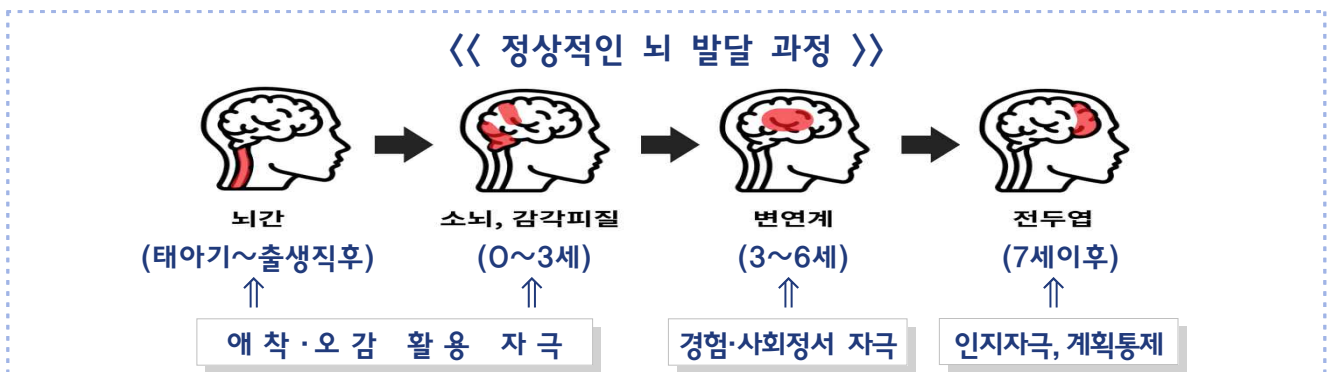


2 불안정한 뇌 발달

- 뇌는 아래에서 위로, 뒤에서 앞으로 발달하는 위계적 구조로서 기초회로 발달 전 고차원적 인지 과제를 강요하면 뇌 구조가 취약해짐⁴⁾

⇒ 정서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과도한 학습 자극 시 정서 뇌 미성숙

⇒ 즉, 뇌의 정서·감정 영역이 정상적으로 발달 되어야 안정적인 뇌 성숙으로 집중력, 문제해결력 등 고등인지 자극에 원활하게 반응



1) unnar, M. R., & Quevedo, K. (2007). The neurobiology of stress and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2) Shonkoff et al. (2012), "The Lifelo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Adversity and Toxic Stress"
 3) Gunnar, M. R., & Quevedo, K. (2008). Early care experiences and HPA axis regulation in children. Progress in Brain Research
 4) Harvard University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The Science of Early Childhood Development"

참고 5

조기 사교육에 대한 오해와 진실

부모의 일반적인 기대 및 믿음	연구 결과
'놀이'는 시간 낭비, '학습'이 진짜 공부다	놀이 기반 학습이 훗날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예) 친구와 놀며 순서를 기다리는 것(충동 억제), 블록으로 성을 쌓으며 계획을 수정하는 것(작업 기억, 유연성) 등 ※ 미국소아과학회(Andrew Garner, 2018)
인지적 사교육이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다	과도한 학업 부담으로 인한 지속적 스트레스와 놀이 부족은 영유아의 건강한 뇌 발달과 신체 시스템의 안정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 ※ Harvard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2014)
공부는 빠를수록 기초가 튼튼하다	조기 학업의 장기적 효과는 단정하기 어려우며, 유아기에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경험이 이후 학업과 사회성 발달에 더 긍정적 ※ 페리 프리스쿨(High/Scope Perry Preschool Study, 2005)
영어는 어릴 때 할수록 좋다	학업 영어는 모국어(L1) 기반이 튼튼할수록 더 잘 발달 ※ Cummins의 '언어 상호의존 가설(Interdependence Hypothesis)'
사교육은 효과가 확실히 있다	사교육과 성적의 상관이 전반적으로 낮고, 사교육의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음 ※ 육아정책연구소(영유아기 사교육 경험과 발달에 관한 연구, 2024)
아이가 '원해서' 하는 사교육은 괜찮다	'배움에 대한 호기심(내재적 동기)'이 아니라면, 보상 없이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원래 가지고 있던 내재적 동기마저 훼손 ※ Lepper, Greene & Nisbett의 '과잉정당화 효과(overjustification effect)' Decy&Ryan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뇌 발달을 위해서는 자극을 '많이' 줄수록 좋다	아이가 보낸 '신호'를 어른이 잘 받아주고, 적절히 응답하는 상호작용(serve & return)이 가장 효과적 자극이며, 많은 자극보다 "적절한 자극과 충분한 휴식·놀이·수면"이 뇌 발달에 긍정적 영향 ※ A default mode of brain function(2001)
사교육을 안 시키면 초등학교 적응이 어렵다	초등학교 적응에 필요한 역량은 학업적 역량만이 아니라 집행기능과 정서조절을 포함한 자기조절 능력이며, 이러한 역량은 조기 사교육보다 충분한 놀이와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생성 ※ Blair & Raver(School Readiness and Self-Regulation, 2015)

☺ 조기선행이 아닌 놀이·정서·자기조절 중심의 기초역량이 장기 성취의 핵심

☹ 영유아기 과도한 스트레스·학습부담은 뇌 발달과 건강에 장기적 악영향